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내 ‘즐거운 생활’과 3학년 음악 교과 간 연계성 분석 - 제재곡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the Connections in the 'Pleasant Life' i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and Music Subject for 3rd Grade: Focusing on the Music Pieces

박송이* · 박소형** · 한지수***

Song-Ie Park^{ID} · So-Hyung Park^{ID} · Jisu Han^{ID}

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의 공통 제재곡을 분석하여 교과 간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2종 이상에 공통으로 수록된 6곡을 중심으로, 악곡 유형과 제시 방식, 주요 음악 요소, 주요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통 제재곡 11곡 중 7곡이 통합 교과서에서 가사 악보로 제시되어 음악 요소 지도에 한계가 있었으며, ‘장단’(15건), ‘박, 박자’(12건)와 관련된 학습이 가장 많았다. 주요 학습 활동은 연계-반복 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 교과서에서 음악적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연계-확장 및 연계-심화 수준의 활동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통합교과 내 음악교육과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의미 있는 제재곡을 활용하여 음악적 개념과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음악교육 전문가가 통합 교과의 교육과정 설계 및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2022 개정 초등학교 통합교과, 초등학교 음악 교과, 제재곡 연계, 음악 교과 연계성, 음악 요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nections betwee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textbooks and third-grade music textbooks, focusing on the common music pieces. The analysis focuses on six common music pieces that appear in integrated textbooks for grades 1 and 2 and at least two music textbooks for grade 3. The scope of the study is the type of music and the way it is presented, the main musical elements, and the main learning activities of common music pieces. The study found that 7 out of 11 common music pieces were presented as lyric sheet music, limiting musical element instruction. The most common musical elements were “Jangdan”(15 cases) and “Beats, Measure”(12 cases). The main learning activities were most often at the Related-Repetition level, highlighting the need for stronger musical activity integration in the integrated textbooks and more Related-Expansion and Related-Advanced level activities in the third-grade music textbooks. To effectively link music education within the integrated curriculum and music education in the third-grade, a variety of meaningful repertoire should be used to organically connect musical concepts and activities, and music education specialists should participate in the curriculum design and textbook development process.

Key words: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elementary school music subject, connection of music pieces, connection of music subject, musical elements

* First author, E-mail: kia1057@snu.ac.kr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 Co-author, E-mail: suerinpk@snu.ac.kr

Ph.D.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su0712@snu.ac.kr

Ph.D.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I. 서론

우리나라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야 학교에서 정규 음악 교과를 배울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의 서로 다른 교과 편제를 가지며, 이때 1~2학년군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2학년 학생들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합한 통합교과를 배우고 이 중 음악을 비롯한 미술과 체육이 포함된 과목이 바로 ‘즐거운 생활’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가 처음 등장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시기로, 이때의 통합교과는 별도 교육과정이 아닌 분과주의적 성격의 교과 합본이었다(Song, 2024). 정식 교과로 채택된 제5차 교육과정 시기 이후, 통합교과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있어 음악, 미술, 체육 각 교과의 내용을 단순히 병합하는 형태로 구성했다는 비판을 받는다(Park, Lee & You, 2004).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통합교과는 활동 주제로 수업이 구성되었고, 2007 교육과정에 이르러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통합하는 단원이 개발되었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대주제 중심의 주제별 교과서가 제시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4).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교과서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통합교과 수업의 궁극적 지향점이자 역량으로 [지금-여기-우리 삶]을 제시하며, 통합교과의 주제 수업을 통해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밝혔다(Ministry of Education, 2024). 이를 위해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 중심, 경험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주제 개발권을 현장에 넘긴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통합교과가 추구하는 교육적 의도와 방향이 학생들에게 삶과 연관된 실제적인 경험과 유의미한 학습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통합교과만의 분절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음 학년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적응 활동, 안전한 생활 습관, 충분한 신체 활동, 누리과정 및 3학년 이후 교과 교육과 연계해서 다룰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p. 37).”라고 서술하며, 통합교과가 이후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시하였다(Song, 2024).

하지만 개정된 즐거운 생활 교과는 교과의 성격을 표현 놀이 중심에서 놀이 중심으로 수정하고 탈학문적 질문 형태를 도입함에 따라 음악적 표현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Yang, Lim, Lee, Park & Song, 2024), 음악 교과 관련 내용과 교육 목표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Oh, Choi, Moon, Yang & Park, 2024) 음악 교과와 관련된 성취기준 역시 추상적으로 서술되었다(Kim, 2024).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전부터 꾸준히 통합교과와 음악 교과 간 연계의 한계점이 지적되어 온 것을 감안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Kim, 2024; Oh, Choi, Moon, Yang & Park, 2024; Yang, Lim, Lee, Park & Song, 2024).

통합교과가 3학년 이상의 교과 교육을 연결해 주는 지점이며 다음 학년에서 본격적으로 교과를 배울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Lee, 2015), 학생들의 교육적 혼란을 줄이며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음악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년군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다(Park, Park & Han, 2023). 이것은 차후 3-4학년 음악 교과 교육과정과 5-6학년 음악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Kwon & Yu, 2020). 음악은 생애 어느 한 단계에서 비약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교과가 아니다. 점진적으로 구성되고 발전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계열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음악 경험이 중요하고(Lim, Kim & Song, 2024), 이것은 학년군 간의 바람직한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제재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학습 내용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음악적 경험이 제재곡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Park, Park & Han, 2023). 제재곡은 음악 학습 내용과 활동을 구체화하는 바탕이 되며(Kwon, 2009),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교육 현장으로 가져와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Chang, 2016). 또한 제재곡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고차원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는 단순히 특정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각 영역을 아우르며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를 포함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2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에서 제시된 제재곡과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에 수록된 제재곡의 연계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서 제시된 공통 제재곡의 종류와 특징 및 유형 등을 파악하고, 통합교과 내 음악교육과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 발달 단계 이론

고든(E. Gordon)은 모든 사람들이 지능과 같이 어느 정도 음악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으며, 이를 음악 적성(Music Aptitude)이라 하였다. 만 9세 무렵이 되면 음악 적성은 고정되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데, 음악 적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아동이 경험하는 음악적 환경과 자극에 따라 음악 적성이 좌우되므로 고든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Cho, Choi & Chung, 1996). 또한 음악 적성의 발달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출생 후부터 만 9세에 해당하는 발전적 음악 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 단계에서는 좋은 음악 환경을 바탕으로 조성적(Tonal), 리듬적(Rhythmic) 감각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음악 발달 단계를 제시한 짐머만(M. Zimmerman)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조성감, 청지각, 화성 지각 능력이 발달하고 조성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Ham, Choi, Seog & Kwon, 2017). 이 시기의 아동은 일정 박의 유지가 가능하며 음악 요소에 대한 보전 개념이 형성되는 등 기초적인 음악 능력이 발달하여 가창 · 연주 · 독보 능력 또한 향상된다. 짐머만은 양질의 음악적 경험을 통해 아동의 음악 인지 능력이 크게 상승하므로,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음악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Seung, Kwon & Choi, 2022).

음악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개념 중심 음악 학습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 시기에는 아동의 음악적 선호가 결정되므로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장르의 음악 경험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Seo, 2019). 또한 이 시기에 청각각을 비롯하여 아동의 음악적 능력이 발달하고 음악 표현 욕구가 상승하여,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음악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Yang, Lim, Lee, Park & Song, 2024).

음악 발달 단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교수 · 학습 방안에 관한 논문이 많았으며(Lee, 2020), 백워드 설계를 기반으로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음악 수업에 관한 연구(Yang, 2018),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를 분석한 연구(Hong, 2021),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중국 교수법을 분석한 연구(He, 2022) 등이 있었다. 이 중 홍승연(Hong, 2021)은 연구에서 아동은 언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쳐 음악을 배우므로, 음악 학습이 위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는 음악 수업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 창의성, 음악 적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박자와 조성의 제재곡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교육과정의 연계성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선정하거나 조직할 때, 내용 간의 긴밀하고 적합한 연계성을 갖추는 것은 교육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Paik, 2020).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내용의 적절성과 유·초·중등 학교급 변화에 따른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가리킨다(Kim, Park, Choi & Lee, 2013). 교육과정의 횡적 연계는 둘 이상의 교육과정이 학업 능력, 학습량, 지식의 난이도가 유사하며 교과 내·교과 간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를 말한다. 종적 연계는 교과 내용이 이전 학년(군)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위계를 갖고 내용이 심화, 확대되며 전문성을 갖는 관계를 말한다.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관한 증거는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일반적으로 타일러(R. Tyler)가 제안한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 중 계속성(continuity)과 계열성(sequence)이 강조된다(Lee, 2016). 계속성과 계열성은 교육과정의 종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원리로, 수직적인 구조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반복하거나 더 넓고 깊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Min, 2020). 이외에도 브루너(J. Bruner)는 지적 발달 단계의 상승에 따라 동일한 지식을 반복·심화하여 가르치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지식을 축적하며 구성해가는 가네(R. Gagne)의 위계적 학습이론 또한 교육과정의 위계성과 관련이 있다(Lee, 2010).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접하는 첫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된 교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통합교과의 여러 주제는 3~4학년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문적 내용의 기초가 되며,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에서 즐거운 생활의 놀이, 문화, 예술 활동과 3학년 이후 음악·미술·체육과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과 내·교과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다룬 횡적 연계에 관한 연구가 종적 연계에 비해 많았다. 교육과정의 종적 연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것이었다(Lee, 2015; Lee & Jang, 2014; Park & Kim, 2019).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와 3~6학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즐거운 생활과 미술과(Song, 2024), 슬기로운 생활과 과학과(Park, Chang & Jin, 2022), 누리과정 및 통합교과와 사회과(Jo, 2023), 통합교과와 음악 교과(Park, Park & Han, 2023)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박송이, 박소형, 한지수(Park, Park & Han, 2023)는 연구에서 공통 제재곡의 연계성을 '비연계, 반복, 확장, 심화, 발전'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체계적 음악 학습을 위해 1~2학년 통합 교과서에 음악 요소를 추가적으로 다룰 것, 제재곡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음악 교과에서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횡적 연계성 분석(Seung, Kwon & Choi, 2022), 초·중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간의 연계성 분석(Jang & Park, 2023) 등 횡적 연계에 관한 연구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Chang, 2015), 누리과정 표현활동과 즐거운 생활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Nam gung & Jeon, 2011) 등 종적 연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장지원(Chang, 2015)은 타일러의 교육과정 조직 원리 중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바탕으로 초·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탐색하였고, 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해 영역과 음악 요소들의 지속, 심화, 확충, 통합을 바탕으로 한 연계의 중요성, 제재곡을 중심으로 한 연계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초등학교 통합교과 및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를 공통 제재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제재곡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통합교과와 음악 교과는 교육적 목표와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 교과서와 음악 교과서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 단순히 학습 목표나 활동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그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실제 음악적 개념과 학습 과정의 연계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목표나 활동의 유사성이 아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제재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연계성을 분석하면 학습 내용의 지속성과 심화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음악적 개념이 학년 간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포함되는 제재곡은 학생들의 음악적·인지적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선정되며 다양한 음악적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제재곡은 음악의 영역을 하나의 중심 개념 안에서 통합할 수 있으며 음악적 개념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고, 교사가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을 연결하는 기준점이 된다(Chang, 2015). 이처럼 제재곡은 음악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학습 현장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 교과서에서 선정된 제재곡과 그 교육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은 음악교육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음악 교과는 타 교과와 달리 제재곡이 학년 간 연계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Chang, 2015).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제재곡 자체가 음악적 경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리듬, 박자, 선율, 형식 등의 기본적인 음악 요소를 자연스

롭게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 학습은 개별적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험한 음악적 요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Lee, 2010).

이렇듯 음악 학습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학년에서의 감각적, 경험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진 후 점차 체계적인 음악 개념 학습으로 발전해야 한다(Lee, 2010). 따라서 동일한 제재곡이 통합 교과서와 음악 교과서에 등장하는 경우, 공통 제재곡을 중심으로 학습의 반복·확장·심화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년 간 음악 학습의 연속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연계성, 학생들의 음악적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Kwon, 2009). 따라서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제재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통합 교과서는 「학교」, 「우리나라」, 「사람들」, 「탐험」, 「하루」, 「이야기」, 「약속」, 「상상」, 2학년 통합 교과서는 「나」, 「세계」, 「자연」, 「마을」, 「물건」, 「계절」, 「인물」, 「기억」으로 학년별 8권씩 총 1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는 동아출판,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침나라,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에서 발행한 7종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동아출판 A, 비상교육 B, 아이스크림미디어 C, 아침나라 D, 와이비엠 E, 지학사 F, 천재교과서 G로 구분하였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 16권의 '즐거운 생활' 영역과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 7종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11곡의 제재곡 중, 최소 2종 이상의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6개의 제재곡이다. 3학년 음악 교과서 1종에만 포함된 공통 제재곡은 연계 경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교과서 부록에 수록된 합창곡과 연주곡은 구체적인 음악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공통 제재곡은 6곡으로 제한적이지만,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년 간 음악교육의 연계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 6곡은 3학년 음악 교과서 2종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곡으로 교과서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1~2학년 통합 교과서의 경우 곡의 가사만 제시한 가사 악보가 다수 수록되어 있어, 그림 악보, 가락선 악보, 오선보, 정간보와 더불어 가사 악보로 제시된 제재곡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Table 1>은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의 공통 제재곡으로,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빈도수에 따라 정리한 표이다. 표에는 공통 제재곡을 ‘어깨동무’ S₁, ‘남생아 놀아라’ S₂, ‘아리랑’ S₃, ‘모두 다 꽃이야’ S₄, ‘대문놀이’ S₅, ‘두꺼비 집이 여물까’ S₆, ‘꼬마 기차놀이’ S₇, ‘다섯 글자 예쁜 말’ S₈, ‘어디만큼 강가’ S₉, ‘우주 탐험가’ S₁₀, ‘콩콩콩 콩나물’ S₁₁로 표기하였다. 이 중 S₁~S₆의 제재곡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분석 대상이다.

<Table 1> Common music pieces in the integrated textbooks for grades 1-2 and the 3rd-grade music textbook

Common music pieces	Integrated textbook		3rd-grade music textbook by publisher						
	Grade 1	Grade 2	A	B	C	D	E	F	G
S ₁	●		●	●	●	●	●	●	●
S ₂	●		●	●		●	●	●	
S ₃	●	●	●	●				●	●
S ₄		●	●	●	●				
S ₅	●		●						●
S ₆		●	●	●					
S ₇		●	●						
S ₈	●						●		
S ₉	●								●
S ₁₀	●		●						
S ₁₁		●							●
Total	7	5	8	5	2	2	3	3	5

1학년에서는 ‘어깨동무’, ‘남생아 놀아라’, ‘아리랑’, ‘대문놀이’, ‘다섯 글자 예쁜 말’, ‘어디만큼 강가’, ‘우주탐험가’로 7곡, 2학년에서는 ‘아리랑’, ‘모두 다 꽃이야’, ‘두꺼비 집이 여물까’, ‘꼬마 기차놀이’, ‘콩콩콩 콩나물’로 5곡이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였다. 이 중 ‘아리랑’은 1학년과 2학년에서 두 번 모두 제재곡으로 활용되었

다. 출판사별로 확인해보면, 8곡의 공통 제재곡을 수록한 교과서가 1종, 5곡을 수록한 교과서가 2종, 3곡을 수록한 교과서가 2종, 2곡을 수록한 교과서가 2종이었다. 공통 제재곡의 등장 횟수로는 '어깨동무'가 7개의 출판사에서 최다 활용되었으며, 뒤를 이어 '남생아 놀아라'가 5종에서, '아리랑'이 4종, '모두 다 꽃이야'가 3종, '대문놀이', '두꺼비 집이 여물까'가 2종, '꼬마 기차놀이', '다섯 글자 예쁜 말', '어디만큼 강가', '우주탐험가', '콩콩콩나물'이 1종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종의 교과서에서만 확인되는 공통 제재곡 5곡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깨동무', '남생아 놀아라', '아리랑', '모두 다 꽃이야', '대문놀이', '두꺼비 집이 여물까'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3. 분석 범위 및 기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내 '즐거운 생활'과 3학년 음악 교과서의 공통 제재곡 6곡의 악곡 유형 및 악곡 제시 방식, 음악 요소, 주요 학습 활동이다.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의 경우,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지도서가 함께 제시되었기에 이를 참고하여 음악 요소와 주요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각 제재곡에 따른 재구성 제안 내용 또한 포함하였다. 한편, 주요 학습 활동의 범위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3학년 음악 교과의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발표하기/소감 나누기, 악기 연주 주법 익히기/노래하며 연주하기와 같은 활동은 교과서마다 활동 분류 방식이 달라, 본 연구에서는 같은 활동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범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재곡의 악곡 유형은 교과서의 서술을 기준으로 '동요, 전래동요, 전래동요/전라도 민요, 경기도 민요, 창작곡악동요, 영국 민요'로 구분하였다. '남생아 놀아라', '대문놀이', '어디만큼 강가'는 교과서에 따라 전래동요 또는 전라도 민요로 표기되어 있어 두 가지 분류 형태를 모두 밝혔다. 악곡 제시 방식은 '가사 악보, 그림 악보, 오선보, 정간보'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음정과 박자 없이 가사만으로 구성된 악보는 가사 악보, 3선 보표에 음표가 아닌 그림을 제시한 악보는 그림 악보로 분류하였다. 또한 전래동요 또는 민요의 가사를 표기할 때 정간보에 말붙임새로 나타낸 악보는 정간보로 나타내었다.

주요 음악 요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활용된 음악 요소표(초등학교 3~4학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3학년의 경우 음악과 성취기준과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각 제재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음악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1~2학년 통합교과는 다양한 교과 지식이 통합되어 구성된 만큼 학습 활동 내에서 음악 요소가 주요 활동으로 다루어진 경우에만 음악 요소를 선정·분석하였다. 예컨대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셈여림이라는 음악 요소를 안내하지는 않고 있으나,

놀이를 통해 참여함을 느낄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참여함을 음악 요소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제재곡을 익히는 간단한 노래 부르기 활동의 경우에는 음악 요소인 기본 박을 치며 노래 부르는 활동과 구별하여 음악 요소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학습 활동은 박송이, 박소형, 한지수(2023)가 활용한 통합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 분석 기준을 수정·적용하였으며, 연구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었다. 먼저, 박송이, 박소형, 한지수(2023)가 사용한 분석 기준을 보면, 연계 수준을 5개로 나누어 ‘0수준/비연계, 1수준/반복, 2수준/확장, 3수준/심화, 4수준/발전’으로 나누고 비연계는 0수준(소멸)로 단일화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과가 간학문적·탈학문적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음악을 포함하고 있는 즐거운 생활 교과의 성격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음악 활동의 등장 또는 역행, 소멸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기존에 한 가지 수준(소멸)으로 나누어져 있던 비연계 형태를 3개의 수준으로 나누었다. 이로써 통합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Jeon, 2018; Ministry of Education, 2024). 또한 3수준/심화와 4수준/발전에 속하는 활동 내용이 각각 내용의 동일, 확장으로 다르지만, 음악적 수준은 상승이라는 점이 같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수준에 좀 더 기준점을 두기 위해 4수준/발전을 3수준/심화와 통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자 하는 분석 기준은 <Table 2>와 같다. 연계 형태는 넓은 범주에서 비연계와 연계로 나누었으며, 하위 수준으로 비연계에 소멸, 역행, 등장 수준, 연계에 반복, 확장, 심화 수준을 두었다.

<Table 2> Types/Levels of connection and content with examples

Type	Level	Content with examples by connection level
Unrelated	Disappearance	• Activity Removed • e.g. Clapping the beat → (Removed)
	Regression	• Simplified Activity, Reduced Musical Complexity • e.g. Playing rhythmic patterns → Clapping the steady beat
	Emergence	• New Activity Introduced, Increased Musical Complexity • e.g. (No prior activity) → Composing a rhythmic pattern
Related	Repetition	• Same Activity and Musical Complexity • e.g. Clapping the steady beat → Clapping the steady beat
	Expansion	• Modified Activity, Same Musical Complexity • e.g. Clapping the steady beat → Playing the steady beat on a small drum
	Advanced	• Modified Activity, Increased Musical Complexity • e.g. Clapping the steady beat → Playing a syncopated rhythmic pattern on a small drum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제재곡의 유형 및 악곡 제시 방식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공통 제재곡의 유형에 따른 악곡 제시 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통합 교과서에서 동요, 창작 국악 동요와 영국 민요는 총 7곡으로 모두 가사 악보로 제시되었고, 전래동요와 민요는 가사 악보, 그림 악보, 정간보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공통 제재곡은 대부분 오선보로 제시되었고, 악곡에 따라 가사 악보, 그림 악보, 정간보로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제재곡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음악 교과서에서는 더 많은 음악 요소를 포함한 오선보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음악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습하는 음악 요소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Types of common music pieces and notation meth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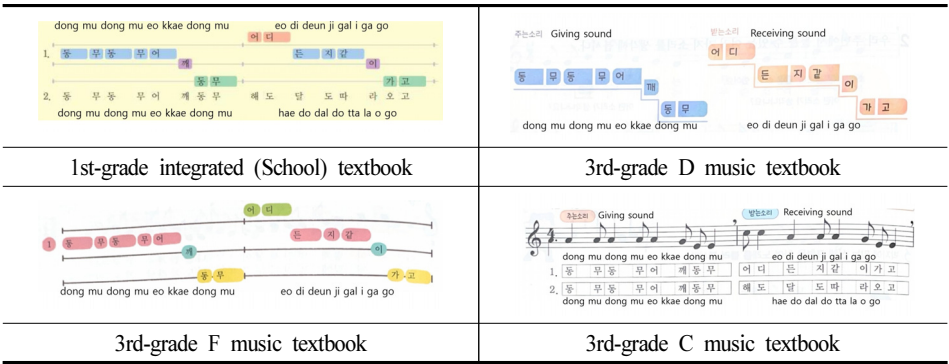
Type	Common music pieces	Notation Method	
		Integrated textbook	3rd-grade music textbook
Children’s song	S ₈	Lyrics	Lyrics
	S ₁₀	Lyrics	Staff
	S ₁₁	Lyrics	Staff
Traditional Children’s song	S ₁	Pictorial	Jeongganbo, Pictorial, Staff
	S ₆	Jeongganbo	Staff
Traditional Children’s song/ Jeolla-do minyo Folk Song	S ₂	Jeongganbo	Staff
	S ₅	Lyrics	Staff
	S ₉	Pictorial	Staff
Gyeonggiminyo Folk Song	S ₃	Lyrics	Staff
Creative Gugak Children's Song	S ₄	Lyrics	Lyrics, Staff
English Folk Song	S ₇	Lyrics	Staff

2015와 2022 개정 통합 교과서에 제시된 공통 제재곡의 악보 제시 방식을 비교하면 아래의 <Table 4>와 같다. 2015 개정 통합 교과서에서는 공통 제재곡 14곡 중 8곡(57%)이 정간보로 제시되어 정간보로 제시된 악곡이 가장 많았지만, 2022 통합 교과서에서는 공통 제재곡 11곡 중 7곡(64%)이 가사 악보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랫말만 제시되는 가사 악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22 개정 통합 교과서의 눈에 띄는 특징으로 박, 박자, 장단, 셈여림 등 음악 요소에 대한 지도가 축소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Table 4> Comparison of notation methods for common music pieces in the 2015 and 2022 revised textbooks

Revision Periods	Notation Method				
	Lyrics	Pictorial	Staff	Jeongganbo	Total
2015	2 pieces (14%)	3 pieces (22%)	1 pieces (7%)	8 pieces (57%)	14 pieces (100%)
2022	7 pieces (64%)	2 pieces (18%)	0 pieces (0%)	2 pieces (18%)	11 piec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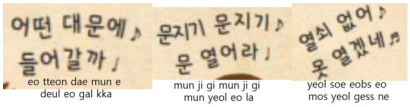
공통 제재곡 중 2종 이상의 3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은 총 6곡으로, 이들 악곡의 악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깨동무(S₁)’는 아래의 [Figure 1]과 같이 1학년 통합 교과서에서는 3선 보표에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그림 악보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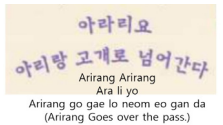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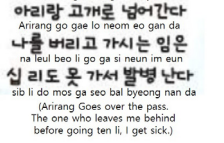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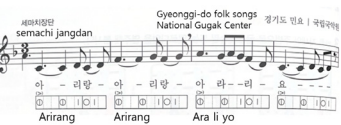
[Figure 1] A section of the S₁ score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통합 교과서와 동일하게 그림 악보로 제시되거나 오선보와 함께 가사의 말붙임새가 정간보로 제시되었다. 그림 악보의 경우, 통합 교과서에서 제시된 3선 보표가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사라진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음악 교과서에서만 악곡을 오선보와 정간보로 제시하여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음악적 수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문놀이(S₂)’와 ‘아리랑(S₃)’은 아래의 [Figure 2], [Figure 3]과 같이 통합 교과서에서 가사 악보로 노랫말만 제시되어 음악 요소에 관한 지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동일한 악곡이 각각 오선보와 정간보로 제시되어 장단, 형식(메기고 받는 형식), 말붙임새 등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졌고, 음악적 수준이 상승하여 위계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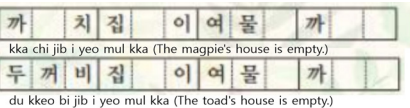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eo tteon dae mun e deul eo gal kka 문지기 문지기 문 열려라 mun ji gi mun ji gi mun yeol eo la 열쇠 없애 yeol soe eobs eo mos yeol gess ne	 jajinmoli jangdan 자진모리장단 me gi neun so li bad neun so li 문지기문지기문열려라 - 열쇠없애 mun ji gi mun ji gi mun yeol eo la yeol soe eobs eo mos yeol gess ne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 National Gugak Centre 전래 동요 · 국립국악원
1st-grade integrated (Korea) textbook	3rd-grade A music textbook

[Figure 2] A section of the S₅ score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Ara li yo Arirang Arirang go gae lo neom eo gan da (Arirang Goes over the pass.)	 Arirang Arirang Ara li yo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sib li do mos ga seo bal byeong nan da (Arirang Goes over the pass. The one who leaves me behind before going ten li, I get sick.)	 세마치장단 semachi jangdan 아 - 리랑 - 아 - 리랑 - 아 - 라 - 리 - 요 - - - Arirang Arirang Ara li yo Gyeonggi-do folk songs National Gugak Center 경기도 민요 국립국악원
1st-grade integrated (Korea) textbook	2nd-grade integrated (World) textbook	3rd-grade F music textbook

[Figure 3] A section of the S₃ score

‘두꺼비집이 여물까(S₆)’와 ‘남생아 놀아라(S₂)’는 아래의 [Figure 4], [Figure 5]와 같이 모두 통합 교과서에서 가사의 말붙임새가 정간보로 제시되어 음의 길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반면에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모두 오선보로 제시되어 음정과 박에 관한 음악 요소의 학습이 이루어졌고 음악적 수준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생아 놀아라’는 오선보에 찍는소리, 떠는소리 등 시김새가 함께 제시되어 음악 요소가 확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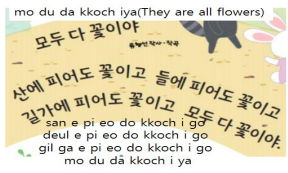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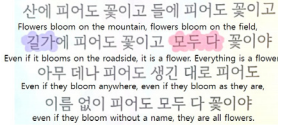
 까 치 집 이 여 물 까 kka chi jib i yeo mul kka (The magpie's house is empty.) 두 껴 비 집 이 여 물 까 du kkeo bi jib i yeo mul kka (The toad's house is empty.)	 1. 두꺼비집 - 이 여물 까 du kkeo bi jib i yeo mul kka (The toad's house is empty.) 까 - 치 집 - 이 여물 까 kka chi jib i yeo mul kka (The magpie's house is empty.)
2nd-grade integrated (Nature) textbook	3rd-grade B music textbook

[Figure 4] A section of the S₆ score

 남 생 아 놀 아 라 chol lae chol lae ga jal non da (The turtle plays well.)	 남 생 아 놀 아 라 chol lae chol lae ga jal non da (The turtle plays well.)
1st-grade integrated (Promise) textbook	3rd-grade E music textbook

[Figure 5] A section of the S₂ score

‘모두 다 꽃이야(S₄)’는 아래의 [Figure 6]과 같이 통합 교과서에서 가사 악보로 제시된 것이 3학년 음악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에서는 가사 악보, 일부 출판사에서는 오선보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악보로 제시된 경우 1~2학년과 동일하게 음악 요소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음악적 수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nd-grade integrated (nature) textbook	3rd-grade A music textbook	3rd-grade B music textbook

[Figure 6] A section of the S₄ score

2. 음악 요소 활용 경향

공통 제재곡별 음악 요소 및 개념 활용 경향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밝힌 바, 교사가 가르치는 데 필요한 가르침 자료나 학생이 배우는 데 필요한 배움 자료, 재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담아 개발된 설명 자료집으로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기반으로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통합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곡과 관련된 활동을 지도서의 교수·학습 안내를 참고하여 3~4학년군에 해당하는 음악 요소 중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 개념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통합교과 제재곡과 관련된 활동이 ‘한 명 선창, 여러 명 후창’ 활동이라면, 이 활동을 통해 목표하는 음악 요소를 확인한 후, 3학년 음악 요소 중 ‘형식(메기고 받는 형식)’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공통 제재곡 6곡 분석 시, 하나의 제재곡에 2가지 이상의 음악 요소가 제시된 경우 각각을 하나의 음악 요소로 간주하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와 통합 교과서 내 음악 요소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공통 제재곡별 음악 요소 및 개념과 활용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Trends in the use of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for common music pie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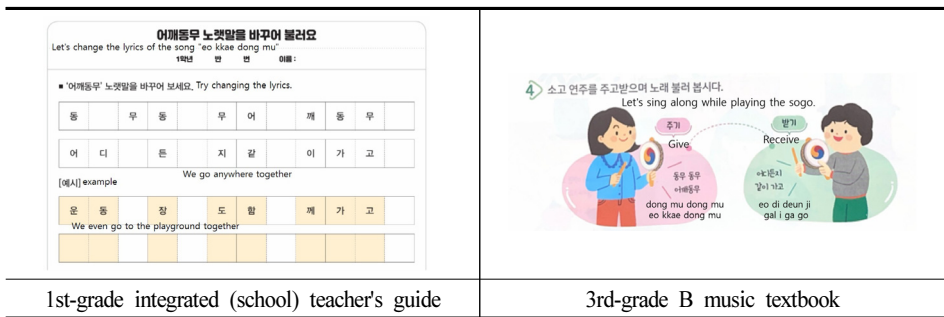
Musical elements & concepts	Common music pieces						Total
	S ₁	S ₂	S ₃	S ₄	S ₅	S ₆	
Beat, Rhythm	6	4	1		1		12
Jangdan, Stress of Jangdan	5	3	5		1	1	15
Duration of Notes							0
Simple Rhythmic Patterns/Forms of Jangdan							0
Mal Butchimsae	3			1			4
Pitch	1		1				2
Step and Skip movement							0
Sigimsae		5					5
Harmony				1			1
Form	7						7
dynamic	1		1				2
Tempo/Hanbae	1				1		2
Voice				1			1
Sound of an Object							0
Timbre of Percussion Instruments	2	1	3	1		1	8
Total	26	13	11	4	3	2	

공통 제재곡의 음악 요소 중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장단’으로 15건이었고, 그 다음으로 ‘박, 박자’가 12건, ‘형식’이 7건 제시되었다. 음악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한 제재곡은 ‘어깨동무(S₁)’로 26가지의 음악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13가지의 음악 요소를 포함한 ‘남생아 놀아라(S₂)’였고, 뒤이어 ‘아리랑(S₃)’이 11가지의 음악 요소를 포함하였다.

통합교과 제재곡 6곡 중 ‘모두 다 꽃이야(S₄)’를 제외한 5곡의 제재곡에서 ‘장단’의 음악 요소가 등장하였고, ‘대문놀이(S₅)’를 제외한 나머지 5곡에서는 ‘타악기의 음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소리’와 ‘소리의 어울림’의 음악 요소는 제재곡 ‘모두 다 꽃이야(S₄)’에서, ‘시김새’의 음악 요소는 제재곡 ‘남생아 놀아라(S₂)’에서만 제시된 반면 ‘음의 길고 짧음’, ‘간단한 리듬꼴/장단꼴’,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물체 소리’는 어느 제재곡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학년 통합 교과서에 수록된 ‘어깨동무(S₁)’는 8개 범주의 서로 다른 음악 요소에서 26가지의 음악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통합교과 음악 제재곡 중 가장 많고 다양한 음악 요소를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남과 여, 짝꿍끼리,

한 명이 선창하고 여러 명이 후창하는 등 ‘메기고 받는 형식’의 음악 요소와 더불어 빠르기를 달리하며 부르는 ‘빠르기’, 기본 박으로 손뼉 치는 ‘박, 박자’,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어 보는 ‘말붙임새’의 개념 학습이 제시되었다. ‘어깨동무’가 수록된 7종의 3학년 교과서에서는 ‘메기고 받는 형식’과 ‘박, 박자’ 학습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음악 요소를 차지하였고, ‘장단’이 4건, ‘말붙임새’와 ‘타악기의 음색’이 각 2건, 그리고 ‘음의 높고 낮음’, ‘셈여림’을 학습하는 것이 각각 1건씩이었다. [Figure 7]은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 ‘어깨동무’의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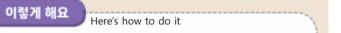


[Figure 7] Comparison of musical elements in S₁

1학년 통합 교과서의 제재곡인 ‘대문놀이(S₃)’에서는 손뼉치기하며 노래의 박자를 익히는 ‘박, 박자’의 개념과 속도를 바꾸어 빠르게 또는 느리게 불러보는 ‘빠르기’, 마지막으로 3박자에 맞추어 소고를 연주하는 ‘장단’의 개념을 학습하였다. 반면 2종의 3학년 교과서에서는 이 제재곡을 부르며 친구들과 놀이를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학습하는 활동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음악 활동과는 별개로 음악 요소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리랑(S₃)’은 유일하게 통합교과 1학년과 2학년에 모두 제시된 제재곡으로 통합 교과서와 3학년 교과서를 합하여 세 번째로 많은 11건의 음악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1학년 통합 교과서의 제재곡 ‘아리랑’의 활동은 제재곡에 맞춰 다양하게 3박자 리듬치기 활동을 하는 ‘박, 박자’ 개념과 소고를 연주하는 ‘장단’, 간단한 타악기로 리듬치기를 하며 제재곡과의 어울림을 경험하는 ‘타악기의 음색’으로 제시되었다. 2학년 통합 교과서에 제시된 ‘아리랑’은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놀이하면서 술래가 대장 근처로 갈수록 노래를 크게 부르고, 멀어질수록 작은 소리로 부르는 ‘셈여림’ 개념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4종의 3학년 교과서에서 이 제재곡의 음악 요소는 ‘장단’이 4건, ‘타악기의 음색’이 2건, 그리고 ‘음의 높고 낮음’이 1건이었다. [Figure 8]은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 ‘아리랑’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해요 Here's how to do it



1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춰요.
1. Dance your shoulders to the song.

2 노래에 맞춰 소고를 쳐요.
2. Play the sogo to the song.

1 '아리랑'을 듣고 따라 불러 봅시다.
1. Let's listen to Arirang and sing along.

2 Let's play the semachi rhythm with the janggu.
2 장구로 세마치장단을 연주해 봅시다.

(>)

①			①		○	
---	--	--	---	--	---	--

명 명 틱 쿵 틱

One group sings a song, and the other group plays the janggu accompaniment.
한 그룹은 노래 부르고 다른 그룹은 장구 반주를 해 보세요.

1st-grade integrated (Korea) textbook

3rd-grade G music textbook

[Figure 8] Comparison of musical elements in S_3

1학년 통합 교과서의 제재곡인 ‘남생아 놀아라(S₂)’에서는 통합 교과서와 3학년 교과서를 합하여 모두 13건의 음악 요소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어깨동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먼저 통합교과에서는 정박을 손뼉으로 치며 노래 부르는 ‘박, 박자’의 개념을 학습하였다. 이 제재곡이 수록된 5종의 3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시김새’ 개념이 유일하게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박, 박자’와 ‘장단’이 각 3건, ‘타악기의 음색’이 1건 제시되었다. [Figure 9]는 ‘남생아 놀아라’의 통합교과 지도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 전래 동요 '남생이 놀아라' 불러 보기 Sing Korean Traditional Children's Song 'nam saeng a nol a' (1) 전래 동요 '남생이 놀아라'를 듣고 따라 부르며 익히기 (1) Learn by listening to the song and singing along (2) 정박을 손뼉으로 치며 노래 부르기 (2) Singing a song while clapping your hands to the basic beat	2. Let's sing a song with sigimsae. 시김새를 실려 노래를 불러 봅시다. A sound made by bending from a slightly higher pitch back to the original pitch. 약간 높은 음에서 원래 음으로 돌아서 내는 소리 A sound made by shaking a note 약간 울음 떨어서 내는 소리  남 생 이 놀 아 라 울 때 놀래가질논 다 nam saeng a nol a la (Turtle, play) chul lae chul lae ga jai non da (The turtle plays well)
1st-grade integrated (promise) teacher's guide	3rd-grade F music tex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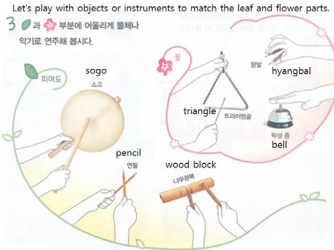
[Figure 9] Comparison of musical elements in S_2

2학년 통합 교과서의 제재곡인 ‘두꺼비 집이 여물까(S₆)’ 학습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관련 놀이 활동을 연계함에 따라 단순 노래 부르기 외의 음악 요소나 개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제재곡은 2종의 3학년 교과서에서 등장하였는데, 한 교과서는 제재곡을 부르며 놀이하는 활동만 포함하고 있었고, 다른 한 교과서는 ‘장단’과 ‘타악기의 음색’이 각각 1건씩 제시되었다. [Figure 10]은 통합교과 지도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의 ‘두꺼비 집이 여물까’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1. Let's play the jajinmori rhythm on the jenggu to the beat of the song 'Will the toad house be full?' 1. '두꺼비집이 여불까' 노래에 맞추어 장구로 자전모리장단을 쳐 봅시다. du kkeo bi jib i yeo mul kka (The toad's house is empty) kka chi jib i yeo mul kka (The magpie's house is empty) 2. 친구와 함께 역할을 바꾸어 가며 노래 부르고와 장단 차기를 해 봅시다. 2. Let's sing and play the jenggu by switching roles with a friend. 
2nd-grade integrated (nature) textbook	3rd-grade A music textbook

[Figure 10] Comparison of musical elements in S_6

마지막으로 2학년 1학기 자연 교과서의 제재곡인 ‘모두 다 꽃이야(S_6)’에서는 반주에 맞추어 바른 자세와 발성으로 노래 부르는 가창 활동만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의해 특별한 음악 요소나 개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3권의 3학년 교과서 중 1권의 교과서 역시 노래 부르기, 신체 표현하기, 노랫말의 의미를 담아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하기의 활동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음악 요소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나머지 2권의 3학년 교과서에서는 ‘말붙임새’, ‘목소리’, ‘타악기의 음색’, ‘소리의 어울림’의 음악 요소가 각각 1건씩 제시되어 있었다. [Figure 11]은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내의 ‘모두 다 꽃이야’ 음악 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Let's play with objects or instruments to match the leaf and flower parts. 3. 꽃과 잎 부분에 어울리게 물레나 악기로 연주해 봅시다. sogo (flower) hyangbal (leaf) triangle wood block pencil wood ball 
2nd-grade integrated (nature) textbook	3rd-grade C music textbook

[Figure 11] Comparison of musical elements in S_4

3. 주요 학습 활동 연계 수준

1) 주요 학습 활동의 연계 수준 분석

초등학교 1~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타나는 주요 학습 활동의 연계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연계와 연계를 포함한 6개의 연계 수준 중에 비연계에 속하는 역행 수준과 연계에 속하는 발전 수준의 활동은 공통 제재곡 전체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에 <Table 6>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연계 형태는 소멸과 등장으로 2개의 수준에서, 연계 형태는 반복, 확장, 심화의 3개 수준에서 주요 학습 활동을 정리하였다.

<Table 6> Analysis of the connection levels of common music pieces

Common music pieces \ Connection level	Unrelated		Related		
	Disappearance	Emergence	Repetition	Expansion	Advanced
S ₁	1/5	-	13/21 (61.9%)	3/21 (14.3%)	5/21 (23.8%)
S ₂	0/3	-	7/16 (43.8%)	3/16 (18.8%)	6/16 (37.5%)
S ₃	7/9	4/14 (28.6%)	4/14 (28.6%)	2/14 (14.3%)	4/14 (28.6%)
S ₄	1/2	2/9 (22.2%)	3/9 (33.3%)	-	4/9 (44.4%)
S ₅	3/4	1/2 (50.0%)	1/2 (50.0%)	-	-
S ₆	1/3	1/3 (33.3%)	1/3 (33.3%)	-	1/3 (33.3%)

비연계-소멸 수준은 1~2학년 통합교과의 활동이 공통 제재곡을 다루는 어떠한 종류의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3학년 음악 교과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연계 수준들과 달리 통합교과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비연계-소멸 수준에 속한 활동의 결과값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멸된 활동 수/전체 활동 수’를 표기하였다. 이때 ‘아리랑’은 1학년과 2학년 통합교과에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 활동 수가 9개로 다른 제재곡에 비해 많은 수를 보인다. 비연계-소멸을 제외한 다른 연계 수준은 연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통 제재곡을 다루고 있는 3학년

음악 교과서 7종에 나타난 활동 전체를 기준으로 각 연계 수준의 활동 수(각 수준에 해당하는 활동 수/교과서 7종의 전체 활동 수)를 나타냈다. 이때, 비연계-소멸 수준과 다른 수준의 기준이 다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비연계-소멸 수준을 제외한 다른 수준은 백분율(%)을 동시에 표기하였다.

공통 제재곡별 연계 형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곡이 비연계보다 연계 형태의 활동을 더 많이 구성하고 있었다. 연계 형태에 속하는 반복, 확장, 심화 수준을 모두 합하고, 차순위로 비연계-소멸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연계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남생아 놀아라(S₂)’, ‘어깨동무(S₁)’, ‘모두 다 꽃이야(S₄)’, ‘아리랑(S₃)’, ‘두꺼비 집이 여물까(S₆)’, ‘대문놀이(S₅)’ 순이다.

연계 수준 내에서는 심화 수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모두 다 꽃이야’ 이외에는 반복, 확장, 심화 중 반복 수준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위 제재곡의 활동 간 연계성을 보았을 때, 비연계-반복(3/9)과 비연계-심화(4/9)의 활동 수가 1개 이하라는 점에서, 6개 공통 제재곡 모두 대체적으로 반복 수준의 연계성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연계 수준은 비연계-소멸과 비연계-등장으로 나누었을 때, ‘아리랑’ 학습 활동의 대부분(7/9)이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다뤄지지 않아 비연계-소멸 양상을 띄었으며, 뒤를 이어 ‘대문놀이’(3/4), ‘모두 다 꽃이야’(1/2)의 활동 절반 이상이 소멸되었다. 반면, ‘남생아 놀아라’(0/3)는 통합교과에 제시된 세 가지 활동이 모두 3학년 음악 교과와 연계되었다. 비연계-등장 수준에서는 ‘두꺼비 집이 여물까’(66.7%)가 통합교과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음악 교과 활동을 구성한 비율이 높았으며, ‘대문놀이’(50.0%), ‘아리랑’(28.6%), ‘모두 다 꽃이야’(22.2%), ‘남생아 놀아라’(6.3%)가 뒤를 이었다.

2) 연계 수준에 따른 제재곡별 주요 학습 활동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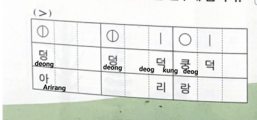
제재곡별로 연계 수준에 따른 주요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학년 음악 교과서 7종 모두에 수록된 ‘어깨동무(S₁)’는 통합교과에서 ‘전래동요에 대해 알아보기, 노래를 들으며 노랫말의 뜻 생각하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 부르기,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노래 부르며 신체 표현하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전래동요에 대해 알아보기’ 활동이 소멸되었다. 연계성 측면에서는 연계-반복의 비율이 61.9%이고 음악적 수준이 동일한 연계-확장 수준의 비율이 14.3%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3학년 음악 교과에서 ‘어깨동무’의 주요 활동으로 제시된 내용 중 76.2%가 1-2학년 통합교과의 내용과 같은 음악적 수준을 보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Figure 12]를 통해 통합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에서 나타나는 ‘어깨동무’의 다양한 연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3. Let's sing while playing and receiving. 노래를 부르며 주고받으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노래를 부르며 주고받으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노래를 부르며 주고받으며 노래를 불러봅시다.	 4. 노래를 부르며 친구의 이름을 넣어 '어깨동무'를 같이 불러 봅시다. 4. Let's continue singing 'no knee dong mu' by putting a friend's name in the lyrics. 노래를 부르며 친구의 이름을 넣어 '어깨동무'를 같이 불러 봅시다. 노래를 부르며 친구의 이름을 넣어 '어깨동무'를 같이 불러 봅시다.	 1. Let's sing while hitting the basic beat. 기본박을 치며 노래 불러 봅시다. 기본박을 치며 노래 불러 봅시다. 기본박을 치며 노래 불러 봅시다.
Related-repetition level: 3rd-grade B music textbook	Related-expansion level: 3rd-grade E music textbook	Related-advanced level: 3rd-grade A music textbook

[Figure 12] Various levels of connection in S₁

두 번째로 많은 교과서에 수록된 ‘남생아 놀아라(S₂)’의 통합교과 활동은 ‘제재곡 익히기, 정박을 손뼉 치며 노래부르기, 노래하며 춤추기’로 비연계-소멸에 해당하는 활동 없이 모두 연계성을 보였다. 연계 수준으로는 반복, 확장, 심화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계-심화 비율이 23.8%에 머물렀던 ‘어깨동무’에 비해 37.5%라는 높은 연계-심화 비율을 보이며 연계 방법에 있어 음악적 수준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재곡 활용 경향은 다른 전래동요 제재곡 ‘대문놀이’와 ‘두꺼비 집이 여물까’가 낮은 연계성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리랑(S₃)’은 1~2학년 통합교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아리랑’은 경기도 민요로 1학년 통합교과에서는 진도 아리랑과 함께 다루었으며, 2학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음악과 함께 제시되었다. 1학년 교과 활동으로는 ‘민요 아리랑에 대해 배우기,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느낌 이야기하기, 노래에 맞춰 리듬치기, 노래에 맞춰 소고 연주하기,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소고 연주를 제외한 활동 전체가 소멸되고 다른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2학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를 듣고 느낌 이야기하기, 노랫말 읽기, 노래 익히기,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활동을 다루었으며, 노래 익히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3학년 음악 교과에서는 ‘노래부르기’와 ‘소고 연주’를 중심으로 연계 활동이 나타났다. 연계 수준은 반복, 확장, 심화가 매우 고르게 나타났으며, 4종의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모두 연계-반복, 연계-심화, 비연계-등장 수준의 활동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그 활동 형식 또한 [Figure 13]과 같이 연계-반복 수준에서는 ‘노래부르기’, 연계-심화 수준에서 ‘세마치장단 연주하기’, 비연계-등장 수준에서 ‘아리랑 소개 자료 만들기’로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Let's play the Semachi rhythm to the song. 2 노래에 맞추어 세마치장단을 연주해 봅시다. 	5 Let's introduce Akyang to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in various ways. 5 친구와 친구를 소개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아강'을 소개해 봅시다. 
Related-repetition level: 3rd-grade A music textbook	Related-advanced level: 3rd-grade F music textbook	Unrelated-emergence level: 3rd-grade B music textbook

[Figure 13] Various levels of connection in S₃

유일하게 연계-심화 수준이 가장 높은 ‘모두 다 꽃이야(S₄)’는 통합교과에서 ‘노랫말을 읽고 생각과 느낌 이야기하기, 노래 익히기’의 두 가지 활동이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3학년 음악 교과에서 제시되지 않은 활동은 음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연계-반복 수준이 33.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음악적 수준에서의 상승을 보이는 연계-심화 수준이 44.4%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Figure 14]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교과의 활동에서는 음악적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계-심화 수준에 해당하는 3학년 음악 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노랫말의 일부 바꾸어 부르기, 목소리로 반주하며 노래부르기’ 등으로 통합교과에서 다른 활동보다 음악적 수준을 높여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st-grade integrated (nature) textbook	3rd-grade B music textbook

[Figure 14] Key activities of S₄

‘대문놀이(S₅)’는 ‘노래 부르기, 손뼉 치며 박자 익히기, 빠르기를 바꾸어 부르기, 소고 연주하며 부르기’ 활동이 통합교과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노래 부르기를 제외한 3개의 활동은 3학년 교과와 연계되지 않고 소멸되었으며, 3학년 음악 교과와 연계된 활동조차 한 번은 연계-반복 수준에서 ‘노래 부르기’ 활동이 제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연계-

등장 수준에서 '친구들과 놀이한 경험 떠올리기' 활동으로 구현되었다. 오히려 통합교과에서는 음악적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한 데에 비해, 3학년 음악 교과에서는 활동 수도 적을뿐더러 활동 내용이나 음악적 수준에서의 발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꺼비 집이 여물까(S₆)'는 통합교과 안에서 '노래 익히기, 놀이와의 연관성 살펴보기, 노래부르며 놀이하기'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놀이와의 연관성을 찾는 활동은 3학년 음악 교과에서 소멸되었다. 대신 비연계-등장 수준에서 '자진모리장단 치기'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연계-심화 수준에서 노래부르기와 장단 연주를 번갈아 진행하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3)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제재곡별 학습 활동 연계성 변화

위의 공통 제재곡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의 연계성을 다룬 박송이, 박소형, 한지수(2023)의 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어깨동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도 다수의 출판사에서 공통 제재곡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계 수준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계 방식에 있어 반복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통합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음악적 수준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의 연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어깨동무'와 같이 전래동요에 속하는 제재곡으로는 '두꺼비 집이 여물까'가 있다. 이 곡은 2015 반영 3학년 음악 교과서가 통합교과의 놀이 요소를 가창 활동과 연계·확장하여 심화된 연계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해 2022 반영 교과서에는 현저히 낮은 연계성 정도를 보였다.

전래동요이자 전라도 민요인 제재곡 중에서는 '남생아 놀아라', '대문놀이'가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모두에서 공통 제재곡으로 활용되었다. '남생아 놀아라'는 2015년 기준으로 36.4%에 달하는 통합교과 활동이 3학년 음악 교과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통합 및 음악 교과에서는 다른 제재곡에 비해 고른 연계성 정도를 보이며 모든 통합교과 활동을 3학년 음악 교과와 연계하였다. 또한 2015 반영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시김새, 장단, 박 등 음악 요소 확장에 방점을 두며 연계-심화 수준의 활동이 마련되었다. 한편, '남생아 놀아라'와 마찬가지로 강강술래의 놀이노래로 활용되는 '대문놀이'는 2015 반영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민요 '아리랑'은 통합교과 내에서도 2015 반영 시, 2학년에만 제시되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면서 1학년과 2학년에 걸쳐 활용하게 되었다. 박송이, 박소형, 한지수(2023)는 2015 반영 교과서 분석 시, '아리랑'은 비연계 활동을 제시하며 통합교

과와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중복을 방지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동일한 내용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이는 연계 형태에서 반복, 확장, 심화 수준을 골고루 제시하며 통합교과와 3학년 교과 간의 높은 연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루어졌기에 가능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개선된 점으로는 본래 연계-심화 수준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에서는 연계-심화 수준뿐만 아니라 반복, 확장, 심화 등 다양한 연계 형태를 활용하며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조를 보여주었고, 연계 비율 또한 63.6%에서 71.4%로 상승하였다.

동요 ‘모두 다 꽃이야’는 2015 반영 교과서에서 공통 제재곡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 반영 2학년 통합 교과서와 3학년 음악 교과서 3종에 새롭게 추가된 곡으로 연계성 경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내 ‘즐거움 생활’과 3학년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1~2학년 통합 교과서 16권과 3학년 음악 교과서 7종에 공통으로 제시된 제재곡 6곡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제재곡의 유형과 악곡 제시 방식, 관련 음악 요소, 주요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학습 활동 분석을 위한 연계 수준은 비연계-소멸, 비연계-역행, 비연계-등장, 연계-반복, 연계-확장, 연계-심화로 구별하였다. 통합교과와 음악 교과 간의 연계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통합 교과서에서는 공통 제재곡 중 57%를 정간보로 제시한 반면, 2022 통합 교과서에서는 공통 제재곡의 64%를 가사 악보로 수록하였으며, 그림 악보와 정간보는 각각 18% 포함하였다.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노랫말만 제시된 가사 악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통합 교과서에서 음악 요소에 대한 지도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교과와 음악 교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 교과서에서의 기초적인 그림 악보 제시 또는 말붙임새를 포함한 정간보의 활용이 필요하나, 음악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가사 악보가 많이 제시됨에 따라 통합교과에서 3학년 음악 교과를 위한 기초적인 음악 이론 및 요소 학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학년 통합교과의 성격이 기존 표현 놀이 중심에서 놀이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Ministry of Education, 2022b), 교과서나 지도서 모두에 음악적 요소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공통 제재곡 6곡 중 통합교과 2곡은 음악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도서와 3~4학년군의 음악 요소를 통해 분석한 통합교과 내 음악 요소는 ‘박, 박자’

와 '장단'이 각 3건, '빠르기'가 2건, '형식', '말붙임새', '셈여림', '타악기의 음색'이 각 1건씩이었다. 이는 공통 제재곡들이 대부분 놀이와 연계된 전래동요나 민요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학년 음악 교과서에서는 음악 요소가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특히 두드러지는 몇 가지의 음악 요소가 눈에 띄었다. '장단, 장단의 세'가 12건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박, 박자'가 9건이었다. 이어서 '타악기의 음색', '형식', '시김새' 순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6곡의 공통 제재곡 중 '장단'과 '타악기의 음색'이 5곡의 공통 제재곡에서 등장한 반면, '시김새', '소리의 어울림', '목소리'는 각 하나의 공통 제재곡에서만 다루었다. 반면 '음의 길고 짧음', '간단한 리듬꼴/ 장단꼴', '차례가기와 뛰어가기', '물체 소리'는 어떠한 제재곡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은 무엇보다 공통 제재곡이라 할지라도 통합 교육과정과 3학년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업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3학년은 제재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음악적 목표를 학습 내용과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반면 통합교과는 제재곡을 음악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놀이의 방법으로 활용한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요 학습 활동의 연계 수준은 비연계에 비해 연계 형태가 두드러졌으며, 연계 형태 중에는 반복 수준의 활동이 가장 많았다. 각 연계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제재곡을 정리해보면, 비연계-소멸 수준에서 '아리랑', 비연계-등장 수준에서 '대문놀이', 연계-반복 수준에서 '어깨동무', 연계-확장 수준에서 '남생아 놀아라', 연계-심화 수준에서 '모두 다 꽃이야'였다. 제재곡별 특징으로는 '어깨동무', '남생아 놀아라'가 각각 연계-반복 수준에서 61.9%, 43.8%의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다양한 연계 수준을 보였다. 한편, 같은 전래동요인 '대문놀이'와 '두꺼비 집이 여물까'는 각각 비연계-등장 수준에서 50.0%, 33.3%를 보이며 낮은 연계성을 나타냈다. 2015 반영 교과서에서 '남생아 놀아라'는 낮은 연계성을 보였지만, '두꺼비 집이 여물까'는 높은 연계성을 보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아리랑'도 연계 형태에 있어 다양한 수준이 고르게 활용되었으나, 3학년 음악 교과서 4종에서 비슷한 활동 양상을 보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에서 처음 공통 제재곡으로 등장한 '모두 다 꽃이야'는 유일하게 연계-심화 수준(44.4%)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이것은 통합교과에서 음악 요소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제재곡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먼(P. Lehman)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음악을 선정함으로써 음악의 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ehman, 2000). 본 연구에서 공통 제재곡으로 선정된 6곡 중 5곡은 모두 전래동요나 민요였고 나머지 한 곡인 '모두 다 꽃이야'도 창작국악동요로 분류되었다. 이는 통합교과가 신체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점과 관련이 있으며 전래동요와 민요가

놀이와 결합된 형태가 많아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래동요와 민요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멜로디와 리듬 구조를 갖추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쉽게 익힐 수 있으며 리듬, 박자, 음높이 등 기본적인 음악적 요소를 학습하는 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통 제재곡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의 연속성과 음악적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제재곡 선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간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이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각 교육과정에서 폭넓은 음악적 요소를 담은 곡들을 균형 있게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재곡 선정 과정에서 음악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고 학년 간 연계성을 고려한 곡 배치와 교수·학습 설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1~2학년 통합교과와 3학년 음악 교과에서 동일한 제재곡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과 경험을 도모하기 위한 학년별 주요 활동의 연계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공통 제재곡의 대부분이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 반복되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는 학년 간 연계성보다는 동일한 경험의 반복에 그치며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에 제한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각 학년에서 제시되는 공통 제재곡에 대한 학습 활동을 확장, 심화, 발전의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Park, Park & Han, 2023). 이를 위해 통합교과에서는 1~2학년 수준에 맞는 기초적인 음악적 요소와 경험을 제공하고, 3학년 음악 교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음악적 개념과 표현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만약 3학년 음악 교과에서 이미 1~2학년 통합교과에서 제시된 제재곡을 다룬다면, 더 고차원적인 음악적 사고와 표현을 요구하는 활동을 구성하여 학년 간 비연계 활동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음악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음악적 성장과 경험을 제공하고 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셋째, 제재곡을 활용한 교육과정의 연계성은 단순한 방법론적 통합을 넘어서 음악적 개념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합교과 내에서 제재곡은 단순히 놀이의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음악적 요소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해야 한다. 제재곡이 다양한 학년 간 연계성의 중심에 놓일 때,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은 점진적으로 심화·확장되며 보다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음악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연계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 전문가들이 통합교과의 교육과정 설계 및 교과서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제재곡 선정 및 활용 과정에서 음악적 개념 및 요소, 학습 활동이 각 학년의 교육 목표와 음악적 개념에 부합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Chang, J. W. (2015). The research on the connection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usic curricula based on Tyler's theory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221-239.
- Chang, J. W. (2016). A study on the connection of the music textbooks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focusing on the music piece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4(2), 131-146.
- Cho, H. I., Choi, E. S., & Chung, J. W. (1996). A study on music aptitude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Based on Gordon's 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5, 437-471.
- Ham, H. J., Choi, E. S., Seog, M. J., & Kwon, D. W. (2017).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usic education* (2nd ed.). Paju: Kyoyookkwahaksa.
- He, Y. J. (2022). Using Gordon's theory of music learning to explore the chinese children's music education metho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 Hong, S. Y. (2021). A study of the teacher's guide book for the music text book based on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Focusing on jump right in the music curriculum, teacher's edi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6), 103-126.
- Jang, G. J., & Park, Y. J. (202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and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21(3), 153.
- Jeon, J. W. (2018). An analysis of the connectivity of contents by grade cluster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 Focusing on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revised in 2015 -. *Social Studies Education*, 57(4), 235-252.
- Jo, E. H. (2023). Analysis of the articulation between the 2019 revised nuri course and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and social studies curricula: Cont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4(3), 55-75.
- Kim, E. J. (2024). Comparison of music learning content in the 'pleasant life' curriculum and textbooks under the 2015 and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61, 1-25.
- Kim, J. S., Park, S. K., Choi, J. S., & Lee, H. N. (2013).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n the sequence and integr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a* (RRC

- 2013-3).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won, H. J. (2009). Searching for the contents and songs of the elementary music textbooks by the revised curriculum of 2007. *The Journal of Korea Music Education Research*, 3(10), 5-34.
- Kwon, S., & Yu, K. H. (2020). Analysis of competence in musical creativity and convergence thinking applied to 2015 3-4 grade music textbooks. *Music Studies*, 28(1), 73-104.
- Lee, E. C. (2020).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 analysis of lesson plan for the 6th grade instrumental ensemble class applying E.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 Focusing on musical cognitive ability -.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Lee, H. K. (2015).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integrated subjects as elementary school subjects.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9(3), 1-31.
- Lee, H. K. (2016). The inquiry of the meaning of the 'domains'('big themes') of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and its articulation or continuity of the nuri curriculum of kindergarten and subjects cluster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3-4 grades cluster.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0(4), 23-47.
- Lee, M. J. (2015). An analysis of association in language education in the Nuri curriculum for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and the curriculum for the first grad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2(2), 1-25.
- Lee, S. M. (2010). The curricular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grade and the kindergarte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2), 59-90.
- Lee, Y. J., & Jang, I. Y.(2014). The articulation analysis of ecological education between the nuri curriculum for 5 year old and the national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for 1st-2nd grad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401-429.
- Lehman, P. (2000). How can the skills and knowledge called for in the national standards best be taught. In K. M. Clifford (Ed.), *Vision 2020: The Housewright symposium on the future of music education* (pp. 7-10). Reston, VA: MENC—The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 Lim, E. J., Kim, S. J., & Song, J. J. (2024). A critical review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the 'pleasant life' subject: Focusing on the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9(1), 55-78.
- Min, M. H. (2020). Study on curriculum continuity of 2019 nuri curriculum and mathematics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7(2), 1-22.

Ministry of Education (2022a). *Music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ary 12]). Sejong: Author.

_____ (2022b). *Right life, wise life, pleasant life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ary 15]). Sejong: Author.

_____ (2024). *Elementary school teacher's guide Right life, wise life, pleasant life 1-1*. Seoul: Jihaksa.

Moon, K. S. (2007). A study on the state of repertoire selection reflected in the U. S.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 series. *Music and Culture*, 18, 21-48.

Nam gung, M. H., & Jeon, B. U. (2011). A study of music curriculum connections between joyous life of elementary school and expression activity of kindergarten and basic curriculum of special school.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6(2), 225-244.

Oh, J. Y., Choi, M. Y., Moon, K. S. Yang, S. H., & Park, J. M. (2024). Analysis of issues in the music area of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pleasant life' and implications on its direction through review of foreign music curricula.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9(10), 187-213.

Paik, E. S. (2020). A Study on the insufficiency of connection show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stry curriculum: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student.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 S., Chang, J. A., & Jin, Y. E. (2022). Analysis on continuity between the 2015 revised elementary intelligent life curriculum and science curriculum for grades 3-4.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41(2), 267-282.

Park, S. H., & Kim, S. H. (2019). The inquiry of articulation on nuri curriculum for 5 year olds and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6), 635-655.

Park, S. I., Park, S. H., & Han, J. S. (2023). The analysis of the connections between elementary school integrated subject and 3rd-grade music subject: Focusing on the music piec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4), 19-44.

Park, S. Y., Lee, K. E., & You, J. A. (2004). The way to integrate and design the curriculum contents of 'pleasant life'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7(1), 87-106.

Seo, Y. E. (2019). A study on the flute teaching method according to M. P. Zimmerman's stage theory of music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age of 7-11.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Seung, Y. H., Kwon, D. W., & Choi, E. S. (2022). Seeking for a desirable connection between the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nd the music curriculum.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7(2), 71-105.
- Song, M. K. (2024). A study on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art curriculum and pleasant life curriculum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 Art Education Association*, 38(2), 132-152.
- Yang, S. Y. (2018).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music in elementary school apply on Gordon's music learning theory based on backward desig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1), 19-37.
- Yang, S. Y., Lim, E. J., Lee, S. M., Park, J. Y., & Song, J. J. (202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usic education in 'pleasant life' in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3(3), 115-134.